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칭)’ 2017년 출범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증식·복원사업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각종 개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의 그간 성과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계획을 지난달 14일 발표했다.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6년 6월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수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 36종에 대해 증식·복원과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은 사업 초기에 개체 희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야생에서의 안정적인 출산 증가 등에 따라 29마리가 자연에 적응하고 있다. 산양은 매년 폭설과 불법 사냥구역 등의 요인으로 고립된 개체들을 치료해 야생에 다시 돌려보내고 있으며, 2006년 9마리뿐이었던 월악산 산양은 현재는 43마리까지 증식했다.

여우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 야생성이 우수한 6마리를 소백산에 방사했으며 방사개체들은 현재 건강하게 소백산을 뛰놀고 있다.

그 외 황새, 파오기 등의 조류와 장수하늘소, 붉은점모시나비 등 곤충류, 꼬치동자개, 감돌고기 등의 어류, 노랑만병초, 미선나무 등의 식물복원에도 성공했다.

또한, 환경부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중복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선진 외국에서 오래전부

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중복지원사업이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연구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추진됐다.

중복지원센터는 국가차원의 중복지원계획 수립부터 핵심종 확보, 증식·복원연구, 기존 중복지원기관과의 협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립이 완료되면 멸종위기 I 급인 스라소니, 사향노루, 나도풍란과 II 급인 금개구리 등의 동식물에 대한 증식·복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추진해 온 환경부는 올해부터 총 사업비 841억 원을 들여 2016년까지 경북 영양에 복원센터를 건립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안에 설계용역 발주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 841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는 약 258만㎡(78만평)의 부지에 증식·복원연구시설, 자연적응연구시설, 지원시설 등이 설치된다.

연면적 3만 3,887㎡인 증식·복원연구시설에는 각 분류별 연구실, 증식실, 검역실 등을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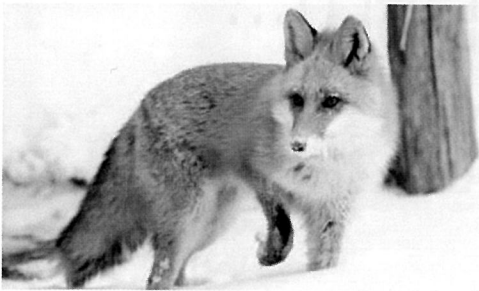
120만㎡의 자연적응연구시설에는 분류군별로 증식된 개체의 자연적응을 돕기 위한 야외 훈련(방사)장, 야외식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의 멸종위기종과 관련한

사업들은 생물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국토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생물자원전쟁시

대로 비유되는 21세기에 생물주권국가로서 생물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K)

주요 증식·복원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특성



멸종위기종 | 급 여우 (*Vulpes vulpe peculica*)

형태	몸길이는 60~80cm이고 꼬리길이는 30~55cm이다. 체중은 5~7kg 정도이며, 몸은 가늘고 꼬리는 길며, 개와 비슷한 형태이나 중등도가 길고 뾰족하다. 귀의 뒷면과 네 발의 발등 부분은 검은색이다.
번식·수명	1~2월에 짝짓기하여 52~56일의 임신기간을 거쳐 한배에 2~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우며, 수명은 15년 정도이다.
생태특성	산림지대 초원 야산등에 살며, 설치류, 멧토끼, 곤충, 조류 및 조류의 알등을 먹는다.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매우 민첩하며, 수영을 잘한다.



멸종위기종 | 급 스라소니 (*Lynx lynx*)

형태	몸길이는 84~105cm, 귀 길이는 7~8cm, 뒷발 길이 20~23cm, 꼬리길이는 20~22cm로 고양이과 동물 중 특이하게 꼬리가 짧고 뾰족하다.
번식·수명	꼬미시기는 1~3월이며 임신기간은 67~74일이다. 4~6월에 한배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수명은 15년 정도이다.
생태특성	울창한 산림에 서식하며 번식기 및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을 제외하고는 단독생활을 한다. 주로 설치류, 멧토끼, 조류, 노루 등을 잡아먹는다.



멸종위기종 | 급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형태	몸길이는 65~87cm, 꼬리길이는 3~4cm이고 체중은 7~17kg이다. 고라니와 비슷하나 좀 더 작고 수컷은 송곳니가 발달하였다. 사슴종류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동물이다.
번식·수명	꼬미시기는 11~12월이며 임신기간은 185~190일이다. 한 배에 2~3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수명은 13년 정도이다.
생태특성	주로 바위가 많은 1,000m이상의 높은 산악지대가 주요 서식지이며 이끼, 연한 풀, 나무의 어린순, 열매 등을 섭취한다. 시각과 청각이 매우 예민하고 행동권은 300ha 정도이다.



멸종위기종 | 급 대륙사슴 (*Cervus nippon hortulorum*)

형태	몸길이 159cm, 어깨높이 94cm 정도이다. 털의 색은 밤갈색에서부터 붉은 올리브색이고 등부위에 흰색반점이 많이 있으며 엉덩이에는 방해발거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털을 꽃꽂이 세울 수 있는 하얀색의 큰반점이 있다. 암, 수 모두 겨울에는 목에 갈기를 지닌다.
번식·수명	꼬미시기는 9~11월이고 임신기간은 220일이며 5~6월에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1년 6개월에 성적으로 성숙하며 26년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다.
생태특성	저지대부터 고산지대까지 분포하며 군집생활을 한다. 나뭇잎, 나무껍질, 이끼, 풀 등을 먹는다. 활동영역은 600~900ha에 이르며 이용 가능한 먹이량에 따라 하루 300~2,500m를 이동한다. 큰 무리를 짓지 않고 작은 집단을 이루지만 한 개체씩도 종종 관찰된다. 어미수컷은 연중 대부분을 거의 단독으로 생활하며 발정기 후 불이 떨어졌을 때는 함께 무리를 형성한다.